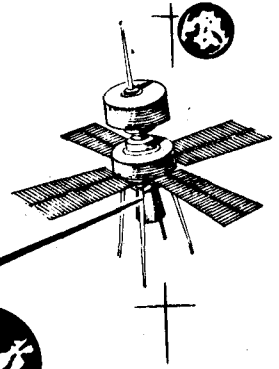


# 안테나



盧 永 翰  
(본지 편집국장)

## 가로수가 먼저 쓰러진다

이달 첫주일을 부활절주일이라고 하여 미국은 성탄절과 맞먹는 규모의 부활절 휴가로 보낸다. 이때가 미국에서 계란값이 년중 가장 높은 이유도 부활절계란의 소비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크리스찬의 수가 천만을 헤아리게 되어 양계협회에서 각 교회에 부활절계란을 실비로 공급 알선하는 일을 하였었다.

계란하면 부활을 생각하게 되니 부활절이야말로 계란의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겠다.

부활의 기쁨이 있기까지는 고통의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다.

봄이 오기전 겨울이 있어야 하는 것과 유사하다. 나뭇가지를 저온처리한 후 온도를 올려주면 꽃이 핀다. 이를 춘화현상(春化)이라고 한다. 꽃만을 보고 즐거워하기 보다는 꽃을 피우기 위하여 추운 겨울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축산업은 그런대로 온실안에서 자라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약간의 외풍이 있었지만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양계산업은 그동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관세·부가세의 인하 또는 철폐와 국산곡류의 배정에서 차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준다면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산이나 들에 있는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태풍에도 끄덕없이 견디지만 가로수는 웬만한 바람에도 쓰러지고 만다.

수입개방으로 외풍이 불어닥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축종과 농장부터 쓰러질 것이다.

## 빌라도의 결단

2천여년전 이스라엘도 땅덩어리는 적는데 지역감정이 대단하였던 모양이다. 갈릴리 지역이 푸대접을 넘어서 적대감정까지 가졌었다.

갈릴리의 젊은청년 예수가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특히 죽은 나사로라는 청년을 살려냄으로써 메시야가 틀림없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크게 환영한다.

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로마군대를 내쫓고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성후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에는 예수를 묶어 처형하라고 외쳐댄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실세인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의(民意)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십자가에 처형하고 만다.

지난 17일 자조금제도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다.

당국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많은 축산인들이 자조금



제도를 빨리 실시하라고 외치는데 이중 대부분이 이 제도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기대만큼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고 그러한 제도도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실시하면 곧바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가 당장 없애버리라고 할 판이다.

양축가를 충분히 교육시킬 선생도 없고 있다해도 진실을 교육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만병통치라는 선동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을 어렵게 만든다.

정부는 지난번 우유의 계획생산때 빌라도식 결정을 하므로써 곤욕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전면에서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장관이나 국장의 결심을 촉구하기도 하나 이는 헛물식 업적으로 끝날 뿐이다. 헛물대왕이 재임중 인기를 얻고 한건 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 종합운동장을 만들었지만 곧 허물어지고 역사상 하나의 폭군으로 평가될 뿐이다.

민주화시대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양계**